

‘백호띠’ 고등학생 된다… 서울 일반고 지원자 4.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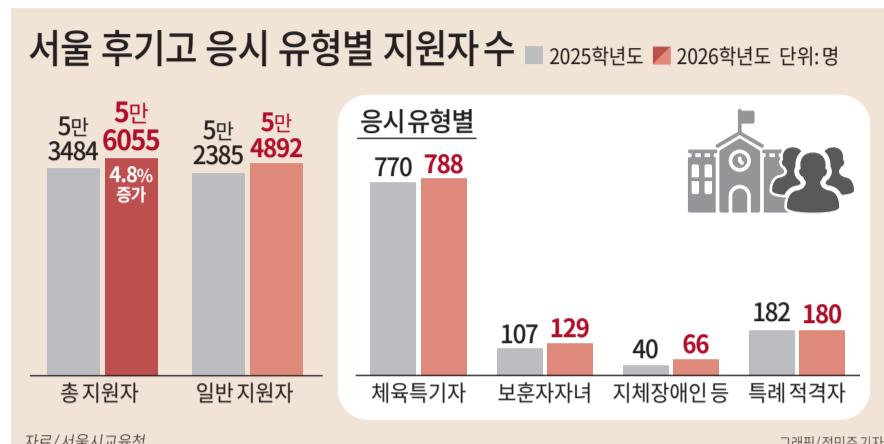
<전년대비>

서울 후기고 지원자 5만6055명 출산율 높았던 백호띠 입학 영향 외고·국제고·자사고 중복지원↓

2026학년도 서울 후기고 원서접수에서 ‘백호띠’ 학생의 고교 진학 시기가 맞물리며 지원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외고·국제고·자사고 중복지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 현황을 8일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배정 대상 학교는 총 212교로, 전년보다 2개교 늘



었다. 이번 변동에는 신설학교인 흑석고와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대광고가 포함됐다.

지원자는 5만6055명(남 2만9208명, 여

2만6847명)으로 전년 5만3484명보다 2571명(4.8%) 증가했다. 이는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2010년생 ‘백호띠’ 학생들이 고교 입학 시기에 도달하면서 지

원 규모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에 중복 지원한 학생은 9843명으로, 전년 1만 509명 대비 666명(6.3%) 감소했다. 대광고의 일반고 전환과 자사고 지원율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복지원자 중 불합격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 대상에 포함된다.

응시 유형별로는 전년 대비 대부분 유형에서 지원자가 늘었다. 일반지원자는 5만4892명으로 지난해보다 2507명 증가했고, 체육특기자는 788명으로 18명 늘었다. 보훈자 자녀는 129명으로 22명, 지체장애인 등 근거리통학 대상자는 66명으로 26명 증가했다.

반면 특례 적격자는 180명으로 전년

대비 2명 감소해 유일하게 소폭 줄었다. 선발 방식은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지원자·보훈자 자녀·지체장애인 등은 절대평가 방식의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한다. 체육특기자와 특례 적격자는 중학교 성적과 관계 없이 선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형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7일에 합격자(배정 대상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29일 배정 학교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해당 중학교에서, 타 시·도 졸업자와 겸정고시 합격자는 원서접수처에서 합격 여부와 배정 학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K-뷰티 베트남 진출기회 넓힌다

서울시, 베트남 최대 유통기업과 협력 K-뷰티 체험관·상설매장 운영 추진

서울시가 베트남 최대 유통기업 빈컴리테일과 협력하면서 서울 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K-뷰티 체험관 운영과 상설매장 구축 등이 추진되며 현지 시장과의 접점을 확대 될 전망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경제진흥원(SBA)은 5일 서울 소재 우수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최대 유통기업 ‘빈컴리테일(Vincom Retail)’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쇼핑몰을 개발·운영하는 빈컴리테일은 하노이 빈컴 메가몰로얄시티(Vincom Mega Mall Royal City) 등 매장을 거점으로 베트남 현지에 K-뷰티 상시 체험 기반을 제공해 서울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견인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K-뷰티 홍보·체험관 공동 기획과 운영 ▲전시·이벤트 등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공동 추진 ▲뷰티·라이프스타일 콘텐츠 기반 문화교류 확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5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빈컴 메가몰로얄시티 내에 마련된 서울 뷰티 홍보·체험관 ‘비욘드 더 뷰티, 비더비@DDP(Beyond the Beauty, B the B@DDP)’를 방문해 AR 헤어 스타일 시뮬레이션(㈜미러로이드), AI 피부진단 및 맞춤형 제품 추천(㈜앙트 러리얼리티) 등 서울 기업의 첨단 뷰티 테크 기술을 체험했다.

서울시는 이번 팝업 행사를 시작으로 해당 공간을 서울경제진흥원 뷰티 복합 문화공간 브랜드 ‘B the B’의 첫 글로벌 상설매장 ‘비더비@DDP’로 전환해 베트남 소비자와 K-뷰티를 연결하는 접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같은 날 하노이에서 열린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도 참석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K-산업 확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및 협력 방안을 찾고, 서울 기업이 실질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고려대, 박사까지 6년만에… 통합과정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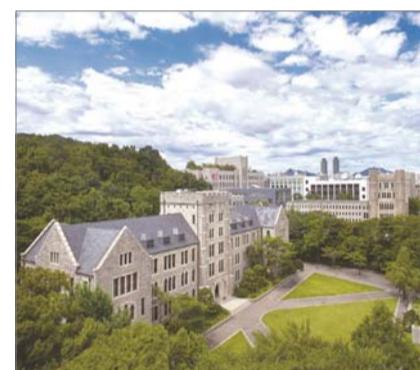
8년 이상 걸리던 박사과정 단축 우수 연구인재 조기 확보 ‘속도’ 교육부, AI 인재 패스트트랙 도입

고려대학교가 학사부터 박사까지 최대 6년 만에 마칠 수 있는 학·석·박 통합 교육과정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통상 8년 이상 걸리던 박사 과정이 크게 단축되면서 우수 연구 인재 조기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고려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학·석·박사 통합연계 과정 신설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현재 심의 중이다.

학·석·박 통합연계 과정은 학부부터 대학원까지의 교육 단계를 구조적으로 연계해 수업 연한을 압축하고, 연속적인 연구 훈련을 통해 학문·연구 역량을 심화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학부 3년 6개월, 석·박사 2년 6개월을 거쳐 총 6년 안에 박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고려대는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3월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5월 첫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고려대 전경. /고려대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 3월 첫 입학생이 대학원 과정에 진입하게 되며, 이번 통합연계 과정은 특수대학원을 제외한 일반·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우수 연구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려대는 장학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조기 졸업자의 경우 입학금과 첫 학기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며, 2~5학기에는 수업료의 50%를 지원받는다. 다만 장학금 유지를 위해서는 매 학기 대학원 성적 평점 평균 4.0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을 검토하는 대학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학·석·박 연계형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에는 통상 8년 이상 소요되는 박사 과정에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우수 AI 인재가 대학 입학 이후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해 20대 초중반에 산업·연구계로 진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 통합과정 근거를 규정하고, 최대 2년 6개 월까지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서 학·석·박 통합과정은 가능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서는 입학단계부터 학·석·박 과정으로 선발하는 통합과정, 학부 입학 후 학·석·박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과정으로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인천 제3연륙교 ‘걷기&달리기 대회’ 성료

개통 앞두고 총 4000여명 시민 참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일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걷기&달리기 대회(WALK&RUN)’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걷기 2000명, 달리기 2000명 등 총 4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도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코스를 걸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주 열린 전국 드래슬론 대회에 이어 제3연륙교 상

부를 시민이 실제로 체험해보는 두 번째 행사로, 전문 경기 중심에서 시민 참여형 행사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3연륙교를 일반 시민이 대규모로 걷고 뛰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가자들은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위에서 바다 전경과 184m 주탑, 청라호수공원과 삼백리 자전거길로 이어지는 도시 풍경을 감상하며 이동했다. 가족 단위와 전 연령층 시민이 참여해 제3연륙교가 향후 생활형 여가·레저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가 “영종과 청라를 잇는 교량을 넘어 인천의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이라며, 시민 체감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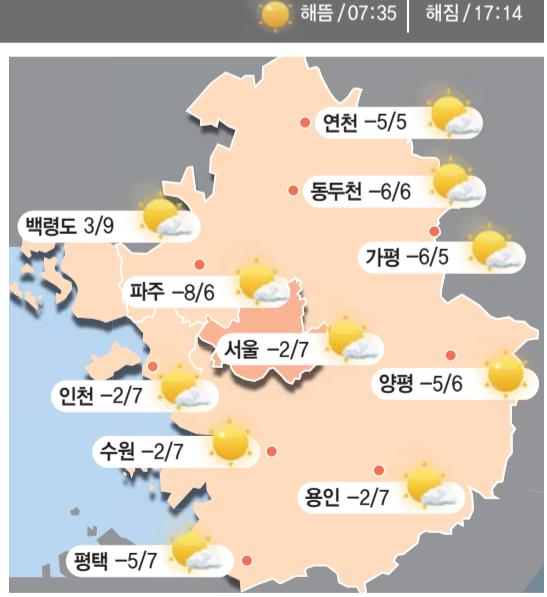
제3연륙교는 총연장 4.68km, 왕복 6차로 규모의 해상교량으로 2026년 1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행로, 자전거도로를 비롯해 해상 전망대, 엣지워크, 친수공간 등 복합 관광시설이 도입될 예정으로,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되고 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12월
9일 (火)
음력 : 10월 20일

수도권 날씨
-2 ~ 7°C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중재’ 태국·캄보디아 또 국경 충돌…태국 1명 사망
▲美, 이집트-이스라엘 정상회담 추진…“네타냐후, 가스 수출 승인해야”

/사진 뉴시스

▲中日갈등, 군사대립으로 확산 양상…‘레이더 조준’ 책임공방 가열

▲日서 사상 최대 히로뽕 밀매…한국인 회사 임원 체포

▲넷플릭스 워너 인수에…트럼프 “문제 될 수 있어” 규제 개입 시사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징벌적 손배소송”